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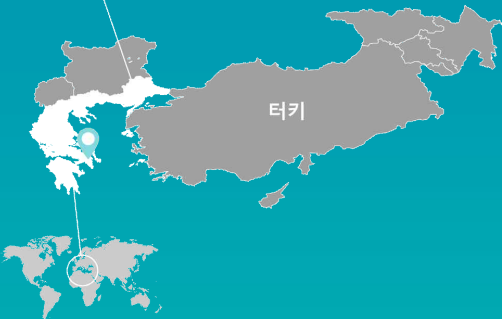
## 그리스

### Hellenic Republic

2021년 11월 29일 | 선임조사역(G2 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그리스  
아테네



## 일반개황

<b>면적</b> 132천 km <sup>2</sup> 	<b>인구</b> 10.7백 만명 (2021 <sup>f</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정책 
<b>GDP</b> 2,116억 달러 (2021 <sup>f</sup> ) 	<b>1인당GDP</b> 19,827달러 (2021 <sup>f</sup> ) 	<b>통화단위</b> Euro (EUR) 	<b>환율(U\$기준)</b> 0.84 (2021 <sup>f</sup> ) 

-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 남단에 위치한 그리스는 한반도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국토와 10.7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선박을 이용한 해운업과 고대 문화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이 발전하였으나, 식료품 가공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임.
- 2010년에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유로존 및 IMF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아 2017~19년에는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관광 부문 타격으로 -8.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19년 7월 총선에서 신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1. 4. 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94), 투자보장협정('95), 항공협정('96), 이중과세방지협정('98), 관광협정('06), 해상협정('06), 경제협력협정('10), 군사기밀정보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978,378	1,639,553	863,20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수 입	604,311	528,177	796,066	석유제품, 의약품, 기타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9건, 16,89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제성장률	1.3	1.6	1.9	-8.2	6.5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8	0.5	-1.3	-0.1
재정수지/GDP	0.9	0.8	0.2	-10.5	-10.2

자료: IMF, EIU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관광 부문 타격 등으로 2020년 -8.2%로 역성장하였으나, 2021년에는 정부지출 증가, 투자 및 수출 증가, 관광업 회복 등으로 6%대 성장 전망**

- 과중한 재정적자로 2010년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하며 역성장을 거듭하던 그리스 경제는 2017년부터 총수출, 총투자, 민간소비의 동반 증가로 국가채무위기에 벗어나며 2017~19년 연속 1%대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와 해외여행 제한으로 관광업과 해운업 부문이 타격을 받아 서비스 수출 급감 등으로 -8.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관광업은 간접효과 포함시 2019년 GDP의 약 25%를 차지하였고, 최근 경제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음.
  - 2020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0.4%(1Q) → -13.9%(2Q) → -10.0%(3Q) → -6.8%(4Q)
-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증가, 기계류 및 운송장비 등 투자 증가, 수출 증가, 해외여행 제한 완화에 따른 관광업 회복, EU의 경제회복 지원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EU의 경제회복 지원(2021~26년 중 그리스에 178억 유로의 보조금과 127억 유로의 대출 지원 등)은 직접적 효과 외에 민간투자 증대 등으로 경기를 부양할 전망이다.
  - 2021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2.3%(1Q) → 16.2%(2Q) → 8.3%(3Q<sup>e</sup>) → 5.1%(4Q<sup>f</sup>)

**코로나19 사태 및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및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무원 수의 25% 감축 및 공공 부문 임금의 30% 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 재정정책의 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인 결과 2016~19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10.5%의 적자로 전환됨. 그리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기존에 EU와 합의된 기초재정수지 조건(GDP 대비 최소 3.5%의 흑자 유지)의 수정을 요청하여 EU의 승인을 얻은 바 있음.

국내경제

- 그리스는 2010년에 시작된 EU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며 기초재정수지를 2018~22년까지 GDP 대비 최소 3.5%, 이후 GDP 대비 최소 2.2% 흑자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한 바 있음. 한편,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는 2018년에는 GDP 대비 4.3%의 흑자, 2019년에도 GDP 대비 4.1%의 흑자를 기록하여 EU와의 합의 조건을 충족하였음.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3.7%('17) → 4.3%('18) → 4.1%('19) → -7.1%('20)
-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및 팬데믹 관련 지원 등 정부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0.2%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는 2021~26년에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EU로부터 178억 유로의 보조금과 127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전망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및 녹색정책에 38%, 디지털 전환에 22%를 배정함.
-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업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24%→13%)를 2022년까지 연장하였으며, 2022년 법인세를 24%에서 22%로 인하하였음.
- IMF는 그리스 Country Report 최신회(2021.7월) 채무지속가능성평가(DSA) 평가에서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19년 184.9%에서 2021년 213.8%로 상승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16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baseline)함.

[그림 1] 그리스의 재정수지 및 공공채무 추이(%)



자료: IMF.

내수 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침체 등으로 2021년 물가상승률 -0.1% 전망

- 그리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가 회복된 2017~19년에도 노동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0.5~1.1%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원유 국제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수 회복 및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침체 등으로 연간 기준 -0.1% 수준으로 전망됨. 한편, 그리스는 여타 유로존 국가보다 가스 의존도가 낮으며 겨울 날씨도 온화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기별 물가상승률은 2021년 3·4분기에는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21년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 -2.1%(1Q) → -0.5%(2Q) → 1.1%(3Q<sup>e</sup>) → 2.0%(4Q<sup>f</sup>)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 상 수 지	-3,606	-6,249	-3,112	-12,413	-9,249
경상수지/GDP	-1.8	-3.0	-1.5	-6.6	-4.4
상 품 수 지	-22,389	-26,532	-25,572	-21,135	-23,942
상 품 수 출	31,703	38,208	36,308	33,036	47,553
상 품 수 입	54,092	64,741	61,881	54,171	71,495
외 환 보 유 액	2,274	2,115	2,142	4,164	3,689
총 외 채	486,100	477,000	503,800	608,900	618,500
총외채잔액/GDP	243.0	224.6	245.3	321.7	292.2
D.S.R.	29.0	16.1	30.4	16.3	19.3

자료: IMF, EIU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 그리스는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광 부문의 타격으로 GDP 규모와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동반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도의 -1.5%에서 -6.6%로 확대되었음.
- 2020년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주요 수입품은 원유)은 국제유가의 대폭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동반 감소하였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2019년 -256억 달러에서 2020년 -211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부문의 급격한 침체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도 2019년 236억 달러에서 2020년 83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 2] 주요 수출품 연도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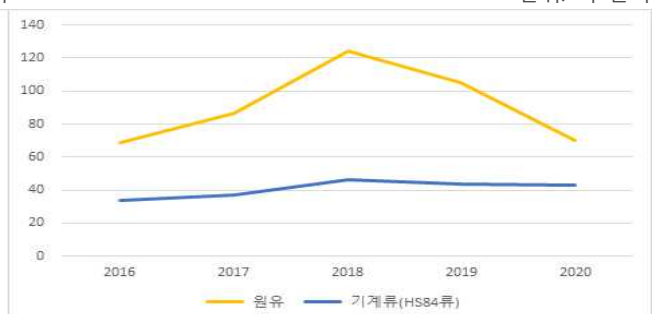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UN

[그림 3] 주요 수입품 연도별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UN

## 대외거래

- 상품수출은 2019년 363억 달러에서 2020년 330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수출도 2019년 449억 달러에서 2020년 260억 달러로 감소하는 등 총수출액(상품수출 + 서비스수출 + 소득수취)이 전년 대비 -24.9%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2019년 42.9%에서 2020년 35.0%로 하락하였음.
- 한편, 2021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에 따라 GDP 규모가 증가하고,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 -6.6%에서 2021년 -4.4%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상품수지 적자는 2020년 -211억 달러에서 2021년 -23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관광 부문의 회복으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2020년 83억 달러에서 2021년 9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경상이전수지 흑자도 2020년 6억 달러에서 2021년 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 상품수출은 2020년 330억 달러에서 2021년 47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서비스수출도 2020년 260억 달러에서 2021년 294억 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등 총수출액이 전년 대비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도 2020년 35.0%에서 2021년 39.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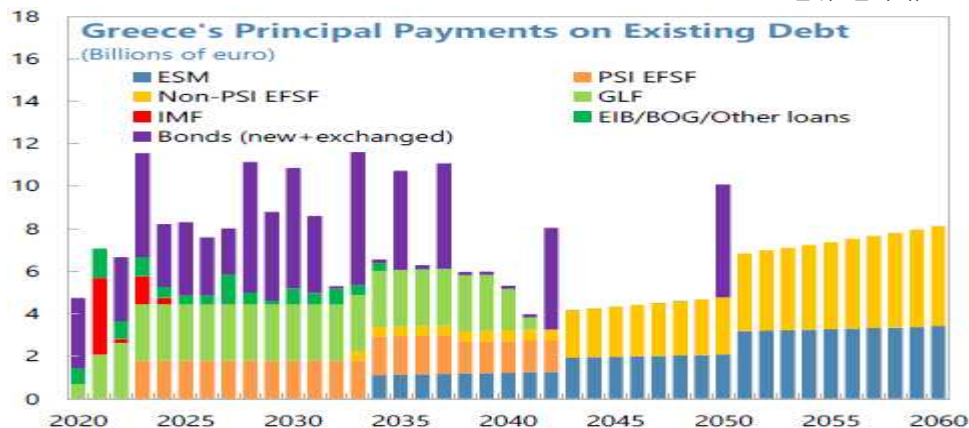
- 2020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GDP 규모의 감소 영향으로 2019년의 245.3%에서 321.7%로 크게 상승하였음. 아울러 2020년 총수출이 -24.9% 감소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19년 571.6%에서 2020년 919.9%로 상승하는 등 2020년에 그리스의 외채상환능력은 취약한 수준이었음.
- 외채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함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30.4%에서 2020년에는 16.3%로 하락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월평균수입액의 0.6개월분 수준에 불과하였음.
- 한편, 2021년에는 총수출이 2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919.9%에서 2021년 732.4%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는 GDP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20년 321.7%에서 2021년 29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외채상환 스케줄에 따른 외채원리금 상환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D.S.R.은 2020년 16.3%에서 2021년에는 19.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외채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

외채상환능력

- IMF 및 S&P 등은 그리스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나, EU 차원의 지원으로 정부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 저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리스는 2010년부터 진행된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 프로그램 등으로 3,000억 유로를 지원받았음. 그리스 외채의 대부분은 EU 긴급 지원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채권자별로는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이를 대체하여 설립된 ESM 1,680억 유로, 유로존 국가<sup>1)</sup> 530억 유로, 민간 투자자 340억 유로, 유럽중앙은행 130억 유로, IMF 12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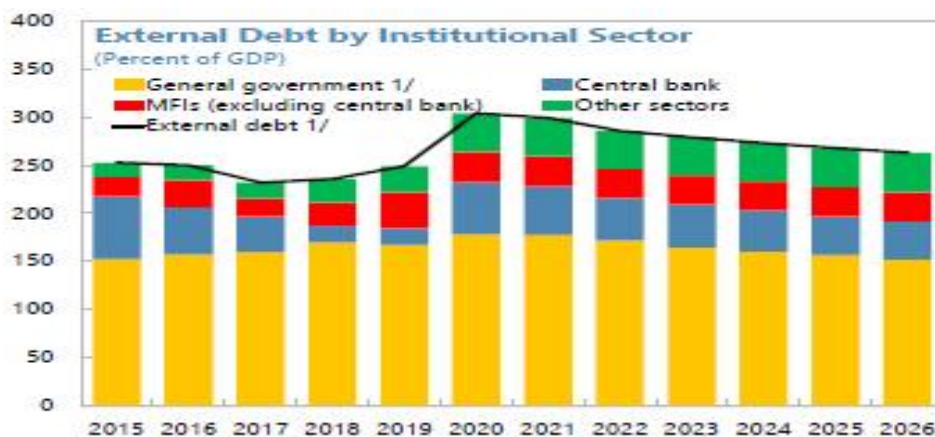
[그림 4] 그리스 외채 원금 상환 스케줄

단위: 십억 유로



자료: IMF

[그림 5] 그리스 기관별 GDP 대비 외채 비율(%)



자료: IMF

1) 유로존 국가의 그리스 앞 양자간 대출 프로그램인 GLF(Greek Loan Facility)에 따른 외채임. GLF는 2010년 5월 합의된, 재정위기 관련 그리스에 대한 최초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임.

## 구조적취약성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 지속

- 정유, 식품가공 등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하고,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관광 및 해운 등 서비스 부문이 GDP의 약 80%를 점유함에 따라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정유 부문의 원료(원유), 에너지 자원, 다수의 제조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2017~20년 평균 2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부실채권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 부문의 취약성 지속

-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금융시장에 지속되어 2020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중이 전체 대출의 30%를 상회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2020년 말 기준 그리스의 부실채권<sup>2)</sup> 규모는 579억 유로로 유로존의 부실채권 4,440억 유로의 약 13.0%를 차지하며, 부실채권 비중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하락하고 있으나 2020년 말 32.8%로 유로존의 2.6%에 비해 약 12.6배 높은 수준임.
- 한편, 그리스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안정펀드(Hellenic Financial Stability Fund)는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4대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여 현재 National Bank of Greece의 40.3%, Piraeus Bank의 27.0%, Alpha Bank의 9.0%, Eurobank의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스 4대 은행의 2020년 부실 익스포저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10%p 이상 하락함.

[그림 6] 그리스 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유로, %



자료: Bank of Greece.

[그림 7] 그리스 4대 은행의 부실 익스포저(NPE) 비중



자료: Deloitte.

2) Non-Performing Loans.



## 성장잠재력

### 다수의 고대 문명 유산으로 관광 부문의 발전 잠재력 보유

- 그리스는 다수의 고대 문명 유산을 보유하여 2019년 기준 관광업이 GDP의 25%(간접효과 포함)를 점유하고 있음. 관광업은 숙박업, 외식업, 교통 인프라 산업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완화 및 세계경기 회복시 그리스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그리스를 찾은 관광객 수는 그리스 전체 인구의 3배에 이르는 3,401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802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430만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물류 및 에너지 요충지에 위치

- 그리스의 주요 항만들은 동지중해에 위치하여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상품 운송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유럽과 중국의 투자를 통해 주요 항만(피레우스 항, 테살로니키 항)들의 터미널이 현대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그리스 항만과 중·동부 유럽 지역을 잇는 운송 인프라 건설을 통해 육상·해상을 연결하는 물류망이 구축될 수 있을 전망임.
- 그리스는 2020년 10월 완공된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전에서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TANAP(Trans-Anatolian Pipeline)과 TAP(Trans Adriatic Pipeline)의 연결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2017년 수준으로 감소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2020년 FDI 유입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투자 감소 및 유럽 국가들의 봉쇄조치와 이동자제령 등으로 2017년(34.9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인 35.7억 달러로 감소함.
- 중국의 투자는 2019년 184백만 유로에서 2020년 30백만 유로로 감소하였으며, 홍콩의 투자도 2019년 433백만 유로에서 2020년 139백만 유로로 감소함.
- 2020년 주요 투자국은 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0~20년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은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과 홍콩이며, 투자분야별로는 금융업 및 부동산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은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지분을 67% 인수하며 항만 인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그리스를 일대일로의 유럽 지역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FDI 유입액(억 달러): 12.7('15) → 27.7('16) → 34.9('17) → 39.7('18) → 50.2('19) → 35.7('20)

## 정책성과

###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세제 개편, 행정개혁 등 추진

- 미초타키스 총리는 2019년 취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조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조세당국의 행정능력이 미약하고 부패 위험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속화되어 세제 효율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 아울러 2020년 9월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의 그리스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에 대해 7%의 단일 소득세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회원국 연금생활자들의 그리스 이주를 통한 세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미초타키스 행정부는 규제 축소, 행정 효율성 개선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산업 부문에서의 불공정경쟁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OECD는 2020년 7월 발표된 그리스 경제보고서를 통해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18년 9월 발표된 '미래발전전략'과 EU 기금을 활용한 '국가 디지털 환경개선 정책(2016-2021)' 등을 통해 전자정부를 비롯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EU 지원 등을 통해 대응

- 그리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68억 유로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동 계획에 따라 기업에 대한 21억 유로의 유동성 공급,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6개월의 사회보험 기여금 지원 등의 고용유지 정책이 시행됨.
-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유예, 코로나19 관련 관광업 부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24%→13%), 도서 지역의 통합재산세 폐지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지원됨.
- EU 차원에서는 2020년 5월 조성된 NGEU(넥스트 제너레이션 EU)의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위험 완화 긴급지원 프로그램(SURE<sup>3)</sup>),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코로나19 대출 등에 따른 자금이 그리스에 대해 지원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여행 제한, 공공활동 제한,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적절하게 취해진 결과 누적 확진자 발생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11월 17일 현재 그리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38,824명, 누적 사망자 수는 16,838명임. 한편,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는 7,826명으로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누적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유럽 국가 중 평균 수준임.
-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카페, 식당, 국가 서비스 및 은행 이용을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자로 제한하는 등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부터 보건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됨.

3)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 정치안정

## 2019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 및 2017년 이후 체제안정성 지수 개선 추세

- 현재 그리스 의회에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중도우파 신민주당이 의회 내 300석 중 158석을 차지하는 등 과반 의석을 점유하여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안정적 정부 구성을 통해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감세 등 세제 개편, 재정건전성 강화, 행정 개혁 및 민영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SYRIZA 등 야당은 신민주당의 행정개혁 및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한 의회 승인 지연을 시도할 전망이나, 분열되어 있고 대체로 무력한 상태임.
- IHS Markit에서 평가하는 체제안정성지수(Country Strategic Risk)는 대규모 시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대 파시즘계 정당은 2020년 10월 법원에 의해 범죄단체로 규정

- 2020년 10월 그리스 법원은 나치즘을 추종하는 극우 정당 '황금새벽당'(Golden Dawn) 창립자이자 현 당수인 니코스 미칼롤리아코스를 비롯하여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직 의원 18명의 범죄조직 운영 또는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황금새벽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였음.
- 황금새벽당은 금융위기 여파로 고강도 긴축재정이 시행되던 와중에 시행된 2012년 총선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겨 7%의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18석을 확보하며 파란을 일으켰음.
- 그러나 이후 그리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좌파 정치인, 노조 활동가, 동성애자 등을 대상으로 살인을 포함한 정치 테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칼롤리아코스 당수를 비롯해 국회의원을 지낸 지도부 인사들이 범죄조직 운영·가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음.

## 사회안정

## 중동·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유입으로 사회불안 고조

- 중동·아프리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EU 국가인 그리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중동·아프리카로부터 다수의 난민들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난민 캠프에는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난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2020년 9월에는 최대 난민 캠프가 위치한 레스보스 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1만여 명 이상의 난민이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주거를 원하는 난민들의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테러 및 파업 위험으로 인한 사회불안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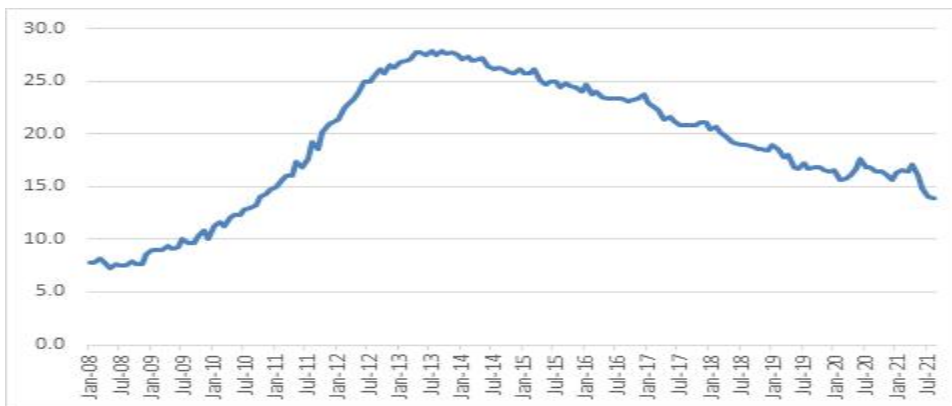
- 극좌파 및 무정부주의 그룹 등이 지난 수년 간 사제폭탄, 수류탄, 차량 주행 중 총격, 소포폭탄 등으로 공격을 가하는 등 그리스는 서유럽에서 테러공격 빈도가 가장 높은 수준임. 그들의 주 공격대상에는 다국적기업, 외국 대사관, 금융기관, 법집행기관, 정당 및 정치인, 대중 매체 등이 포함됨.
- 2020년 7월 공공집회규제법 의회 통과로 시위 참여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민영화, 행정 및 노동 개혁시 노동조합의 집회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2021년 6월 초과 노동시간 선택제 등 노동개혁안 의회 통과 후 파업 위험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운송 등 공공서비스 및 민영화 예정 기업 등의 파업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사회안정

### 청년 실업 등 높은 실업률로 인해 사회불안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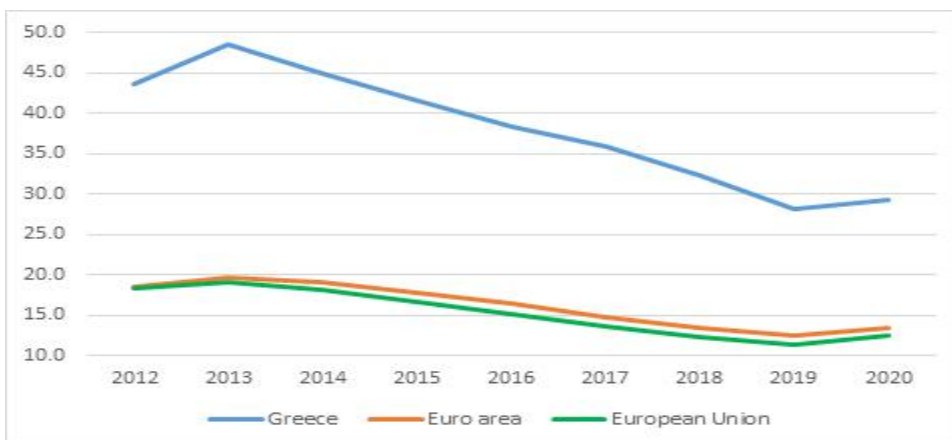
-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3년 최고치인 27.5%를 기록한 이후 2020년 말 15.6% 및 2021년 8월 13.2%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3년 말 27.5%까지 이르렀던 실업률은 이후 경제가 안정되며 2019년 말 16.4%로 하락하였음. 2020년 말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5.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2021년 8월 기준 그리스의 실업률은 EU 평균 6.8%에 비해 약 2배 수준임.
- 특히, 그리스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20년 29.3%로 EU 평균 1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8] 그리스의 실업률 추이(%)



자료: 그리스 통계청

[그림 9] 그리스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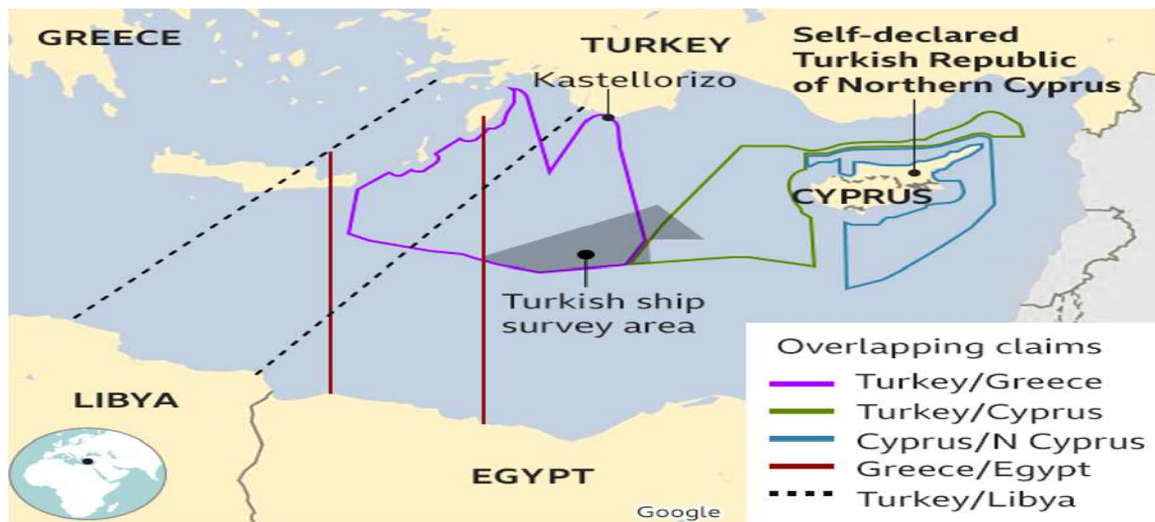
자료: EU 통계청

## 국제관계

### 터키의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 및 군사 훈련 등으로 그리스-터키 갈등 재점화

- 그리스와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리스 점령 및 지배라는 역사로 인해 뿌리 깊은 적대관계에 있으며, 그리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키프로스 섬 인근 동지중해에서 2020년 8월부터 진행된 터키의 천연가스 탐사로 인해 양국간 분쟁이 재점화되었음.<sup>4)</sup>
- 2019년 친그리스계 남부 키프로스 공화국이 프랑스 Total 및 이탈리아 Eni 등 다국적 에너지기업들과 함께 동지중해 해역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자, 2020년 8월 터키는 친터키 지역인 북키프로스의 연안 에너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키프로스 섬 인근에 시추선을 투입해 천연가스 탐사를 실시하였음.
- 동 시추선의 탐사 해역은 그리스 영토인 카스텔로리조 섬과 키프로스 섬 인근 지역으로 그리스-키프로스의 EEZ에 포함되어 그리스와 터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2020년 8월 그리스의 EU 동료 회원국들이자 지중해 연안국들이자 프랑스 및 이탈리아가 그리스와 동지중해 지역에서 합동 해군·공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터키에 무력 시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터키는 9월 북키프로스군과 동지중해 지역에서 해군 훈련을 감행하는 등 동지중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갈등이 고조되었음.
- 2021년 1월 말 그리스-터키 양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탐사활동으로 촉발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재개하여 갈등이 다소 진정되었으며, 양국 모두 NATO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림 10] 그리스와 터키의 동지중해 영유권 분쟁 해역



자료: BBC.

4) 2010년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동지중해에는 최소 석유 17억 배럴과 천연가스 3조 4,546억m<sup>3</sup>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됨.

## 국제관계

### 중국, 피레우스 항만 인수 등을 통해 그리스를 일대일로의 유럽 지역 전초기지로 활용 추진

- 중국의 국영 해운사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중국원양해운(COSCO)은 2008년 이후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 12억 유로를 투자하여 컨테이너 용량을 5배 증가시키고 35년 간의 운영권을 인수하였음. 이어 2016년에는 피레우스 항의 지분 51%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동 지분을 67%로 확대함.
- 중국의 운영권 인수 후 피레우스 항의 항만물동량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유럽 17위에서 2019년 유럽 제4위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발전하였음. 2019년의 물동량은 565만 TEU로 2018년의 490만 TEU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화물운송 증가에 따른 것임. 2020년 물동량은 544만 TEU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로테르담, 안트베르펜, 함부르크에 이어 유럽 제4위 컨테이너 항 지위를 유지하였음.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스 항만 개발을 통해 발칸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거쳐 북부 발트해 연안까지 중·동부 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운송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리스는 중국 정부와 2018년 8월 양국간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시진핑 주석의 그리스 방문과 2020년 9월의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외에도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물류 및 전력 등 그리스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스 민영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그리스가 일대일로의 유럽 내 전초기지가 되어 궁극적으로 유럽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EU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대 그리스 FDI(순유입, 백만 유로): 29('16) → 48('17) → 215('18) → 184('19) → 30('20)

### 프랑스·미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군사적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외부로부터의 공격시 군사적으로 상호 원조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프랑스와 체결한 '전략적 군사·국방협력 협정'을 2021년 10월 초 그리스 의회가 비준하는 등 프랑스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음.
- 그리스는 2021년 1월 프랑스 라팔 전투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9월 라팔 전투기 6대 추가 구매와 함께 30억 유로 규모의 호위함 3대를 프랑스로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함.
- 또한, 그리스는 2021년 10월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5년 연장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함.
- 동 협정은 1990년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미군은 동 협정에 기반해 그리스 영토 내 여러 군사 기지를 확보하여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미국은 그리스를 발칸 반도, 흑해 및 동지중해 지역 안정의 핵심국가로 보고 있으며, 양국은 에너지 및 안보를 포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킬 전망이다.

## 외채상환태도

###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외채원리금 상환 지속

-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로존, IMF 등으로부터 3,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8월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외채원리금 상환을 계속하고 있음.
- IMF의 그리스 Country Report 최신회(2021.7월)에 의하면, 그리스의 GDP 대비 외채 규모는 대부분의 여타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2020년 말 기준 그리스 외채의 59%가 그리스 정부에 의한 대외 차입임. IMF는 그리스의 외채상황에 대한 기본전망(baseline)에서 그리스의 GDP 대비 외채 비율은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팬데믹 이후 GDP 회복 등으로 2025년 267.7%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미 수은,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그리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b>OECD</b>	미평가 (2013.01)	0등급 (2012.01)
<b>S&amp;P</b>	BB (2021.10)	BB- (2019.10)
<b>Moody's</b>	Ba3 (2020.11)	B1 (2019.03)
<b>Fitch</b>	BB (2021.07)	BB- (2019.08)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그리스 등급 상향 조정 등 긍정적 평가

- Moody's는 2020년 11월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 기업 친화적 정책, EU의 안정적 지원 등을 근거로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1에서 B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하였음.
- Fitch도 2020년 1월 안정적 외채상환능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정치 안정 등을 근거로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한 바 있음. 동년 4월에는 등급을 유지하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감안하여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으며, 2021년 7월에 기존 등급 및 전망을 유지하였음.
- S&P는 2021년 4월 그리스 정부의 구조 개혁과 EU의 팬데믹 회복 지원 등에 따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하락 전망 등을 근거로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하였으며, 10월에도 기존 등급 및 전망을 유지하였음.

- 그리스 경제는 수출 및 투자,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7~19년에 경기가 회복되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수출과 소비가 동반 부진하여 -8.2%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투자 및 수출 증가, 관광업 회복 등으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7월 총선에서 신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개혁, 세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실업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2021년 8월 1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동지중해에서의 천연가스 탐사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터키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프랑스 및 미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군사적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중국과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하며 물류 및 전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공적채무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EU 차원의 지원으로 정부 외채의 대부분이 장기 저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